

# “미디어법 투쟁 먼저, 野 통합은 나중”

## 대여 투쟁 속 후순위 밀려 親盧 독자세력화도 걸림돌

미디어법 무효화 투쟁이 야권 통합론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통합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재시동이 걸렸다. 따라서 민주당은 애초 6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야권통합 작업에 전념할 계획이었다. 야권 통합과 당의 혁신작업을 추진할 당내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이다.

그러나 임시국회 막판 발생한 여권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후 상황이 급변했다.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이 통합론을 제치고 야권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위한 총력투쟁 체제로 전환하면서 아직까지 통합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통합의 당위성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오히려 미디어법 투쟁이 야권의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단 미디어법 원천무효라는 공동목표 아래 민주당과 친노 및 재야세력이 연대한다면 각자 복은 감정을 털어내고, 통합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친노세력 가운데 신당과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미디어법 투쟁에 적극 참여키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적이지만 민주당과 친노세력이 연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7일 “민주당과 친노세력이 미디어법 투쟁을 함께 벌여나갈 경우 자연스럽게 공동으로 10월 재·보선 전략을 짜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친노세력과 소통하게 된 자체가 통합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물론 최대의 통합 파트너인 친노진영 일각에서 최근 독자세력화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 통합론의 걸림돌이다. 친노인사 중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신당 창당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친노 신당이 꾸려진다 해도 ‘영남 신당’ 수준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지방선거 후에는 민주당과 또다시 통합을 시도할 것이라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 친노인사는 이날 “대여 투쟁 전당 창당이 강행된다면 그 시기는 올 연말로 전망된다. 적어도 지방선거 6개월 전에는 신당이 만들어져야 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노인사 대부분은 아직도 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이해찬 전 국무총리, 서갑원·박원우 의원은 신당 창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각·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친노 신당이 꾸려진다 해도 ‘영남 신당’ 수준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지방선거 후에는 민주당과 또다시 통합을 시도할 것이라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 친노인사는 이날 “대여 투쟁 전당 창당이 강행된다면 그 시기는 올 연말로 전망된다. 적어도 지방선거 6개월 전에는 신당이 만들어져야 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노인사 대부분은 아직도 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이해찬 전 국무총리, 서갑원·박원우 의원은 신당 창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각·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친노 신당이 꾸려진다 해도 ‘영남 신당’ 수준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지방선거 후에는 민주당과 또다시 통합을 시도할 것이라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 친노인사는 이날 “대여 투쟁 전당 창당이 강행된다면 그 시기는 올 연말로 전망된다. 적어도 지방선거 6개월 전에는 신당이 만들어져야 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노인사 대부분은 아직도 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고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전병헌(오른쪽) 문방위 간사가 27일 오후 국회 사무총장실을 방문해 박계동 사무총장과 미디어법 처리시점의 CCTV화면 등 증거자료 제출요구 거부와 관련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정세균 “민주의원 집단사퇴서 당분간 내가 보관”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가 당장 제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27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 동료 의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의원직 사퇴서 처리 방향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당장 제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야권의 당면 현안은 언론악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 수호와 서민경제 회생 등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를 어떻게 제대로 실천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거망동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현재로는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의원직을 갖고서, 현안을 해결하고 투쟁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당장은 제출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한나라당이 월가 발언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며 “국민 여론을 의면해 언론악법을 밀어붙이고 여야가 진지하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협상을 포기한 것이기에 그 사람들의 정치선전은 국민들이 판단해줄 것”이라고 했다.

원외투쟁 시한과 관련해 정 대표는 “당장 9월 정기국회를 어떻게 하겠다

고 말할 시점은 아니다”며 “현재 재판 결과도 보면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국정을 비판하고 경우에 따라선 경쟁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치를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재투표 및 대리투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재판과 관련, “법리해석만 하면 되는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사안으로서 오래 안 걸릴 것”이라며 “여야가 첨예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명쾌하고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국민 절반 “미디어법 문제 많다”

원지코리아컨설팅 국민 여론조사

국민 절반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매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은 잘못된 것으로 평가했다.

◇미디어법 처리=(주)원지코리아컨설팅이 실시한 3차 정기현안조사 결과, 응답자의 49.7%가 미디어법 통과에 ‘매우 문제가 많다’고, 24.0%는 ‘문제가 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고 각각 답했다. ‘별 문제가 없다’는 응답자는 14.4%에 그쳤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한 데 대해서는 ‘소수 야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응답(38.1%)보다 ‘국회의원이 장외로 나가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응답(54.8%)이 더 많게 나왔다.

또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 전 대표의 처신에 대해 ‘일관성도, 명분도 없었다’는 지적이 57.1%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응답(32.8%)보다 많았다.

◇대선후보 지지도=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여야 정치인들을 열거한 후 선호도를 묻는 결과, 박

근혜 전 대표(28.2%), 유시민 전 장관(8.7%), 정동영 의원(6.8%), 정몽준 최고위원(5.2%), 오세훈 서울시장(5.1%), 한명숙 전 총리(4.9%),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4.5%) 순으로 나타났다.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한나라당 정치인들만을 열거한 후 선호도를 묻는 결과, 박 전 대표(34.6%), 오 시장(11.8%), 정 최고위원(8.4%), 김문수 경기도지사(7.2%) 순이었다. 민주당의 경우, 손 전 대표(17.3%), 유 전 장관(14.4%), 정 의원(14.2%), 한 전 총리(11.0%) 순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DJ, 빠른 속도 회복중”

폐색전증으로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빠른 속도로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에는 미국 하와이대에서 영문학 석사과정을 받고 있는 권노갑 전 의원이 일시 귀국해 김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많이 좋아졌고, 의료진도 안정적이라고 한다”며 “혈압을 비롯해 우선 모든 수치들이 정상이고 인공호흡기 의존도도 차차 낮아져 30~40%로 줄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 전 대통령은 폐렴 증세가 호전되다 일반병실로 옮긴 다음날인 지난 23일 폐색전증이 발병해 다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일단 폐렴이 좋아지니까 근본적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재 영양공급을 아끼 링거에 의존해서 하지만 삼삼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면 이번주에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가 라운지

#### 무등산 조례 ‘재의 요구’ 촉구

○--광주시의회가 의결한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와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무등산 조례)의 공포를 앞두고 광주지역 시민·환경단체가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재의요구권 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무등산개발조례 제정반대 시민회의에 따르면 최근 ‘조례를 공포하지 말고 시의회에 되돌려보내 폐기해 달라’는 내용의 무등산 조례 재의요구권 발동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박광태 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민회의는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가 상위법령 저촉 등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박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시장 면담도 요구하고 있다.

무등산 조례는 지난 13일 시의회 분회의를 통과해 현재 광주시로 이송, 상위법령 저촉과 시민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29일 삼·국장들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는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쳐 의의가 없을 경우 30일째 공포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27일 전국 최초로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신속히 배분하는 등의 업무 관련 운영비를 시 예산

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 유창종씨 민주당



○--담양부군수를 지낸 유창종(56·사진) 전 행정안전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장이 최근 민주당에 입당, 내년 6월 담양군수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명예퇴임한 유 전 센터장은 퇴임 직후 고향 담양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

유 전 센터장은 27일 “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지역 발전과 민주당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입당하게 됐다”고 입당 소감을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본원출신 실제 합격자 중 80%가 여흥발학부터 공무원강좌 수강신청!! www.hanbitgosi.co.kr

**중앙선관위** 2008. 11. 27. 시범 합격자 발표  
공무/지방 경쟁률 1084.71

**수석합격자 배출!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7.9 =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중합반 하루9시간 강의** 공무원/사무원/경찰/법원/소방/국립대학/시립대학/공공기관/교육/의료/농업/기술/경영

**강력 8.3** 중합/단과반 (대입/정규/특수/직무)

**한빛소방직전문학원** 광주 북구청안 TEL 231-0234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안 TEL 231-0234

**김영현입학원** 광주 북구청안 TEL 231-0234